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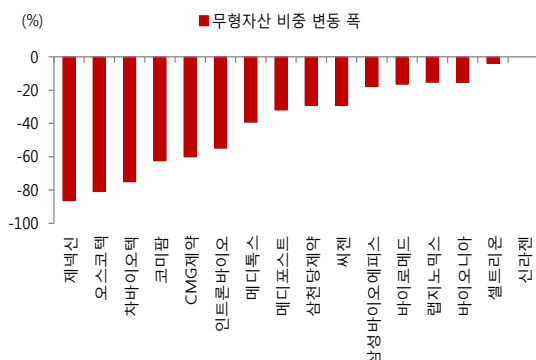
Issue Comment

- ✓ 대웅제약 '나보타' 미국 FDA 최종 승인 획득
- ✓ 2019 년 R&D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
- ✓ 제약/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

대웅제약의 '나보타' 미국 FDA 승인으로 회복되는 제약/바이오 투자심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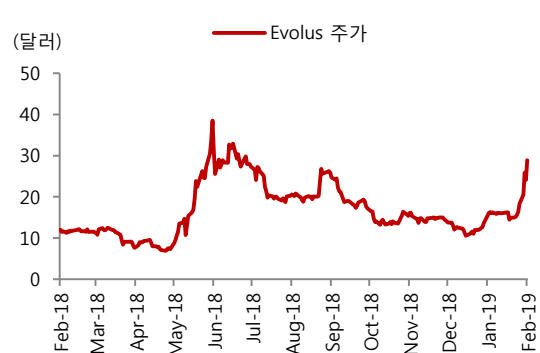
-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신 '나보타'가 지난 2 월 2 일 미국 FDA로부터 미간주름 적응증으로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아 2019 년 4 월부터 'Jeuneau'라는 제품명으로 미국 미용시장에서 판매될 예정.
- 미국 판매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나보타와 분자량이 같은 엘러간의 가격대비(100unit 기준 600 불) 20%~25%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초기 판매를 시작할 예정.
- 에볼루스는 출시 이후 5 년간 3,000 억원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, 최소의무구매금액은 70% 수준.
- 대웅제약이 연간으로 인식하는 매출액은 600 억원 수준이며 2019 년은 런칭 초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연간 400 억 수준의 매출액이 발생될 전망.
- 나보타는 추가적으로 2019 년 2 분기 중 유럽 허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에볼루스의 모회사인 알페온은 또 다른 자회사 설립을 통해 나보타를 치료 적응증으로 추가 승인 신청에 들어갈 예정.
- 이번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FDA 승인을 시작으로 제약/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세가 전망됨.
-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와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2019 년 4 분기 중으로 미국 FDA 승인 예상, 이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전망.
- 기술수출과 미국 임상 3 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 한올바이오파마, ABL 바이오, 올릭스, 제일약품 등의 바이오텍은 추가적인 기술수출, 신라젠, 바이로메드, 메지온은 미국 임상 3 상 결과발표가 기대됨.
- 특히 2018 년 테마감리로 무형자산 비중을 축소하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업체들(제넥신, 오스코텍, 메디포스트, 이수앱지스 등)은 2019 년 낮은 base 에 따른 실적개선이 기대됨.
- 제약/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함.

2017 년과 2018 년의 무형자산 비중 변동 폭



자료 : 각사 사업보고서, SK 증권

에볼루스 주가 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